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승인… 적극행정 결실

시, 2년 4개월 만에 인허가 완료… 내달 착공 예정
3700억 투입…골프장·콘도·휴양문화시설 등 조성

광양시가 시 최초 관광단지인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과정에 서 보여준 적극행정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광양시에 문을 연 이래 3700억원을 투입해 대중형 골프장(27홀)과 콘도미니엄 220실, 휴양문화시설 13층 등 대규모 관광·휴양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김영록 전남도

지사로부터 최종 지정·승인을 받았다.

사업시행자는 ㈜LF리조트이며,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다.

이번 사업은 2017년 광양시에 문을 연 이래 3700억원을 투입해 대중형 골프장(27홀)과 콘도미니엄 220실, 휴양문화시설 13층 등 대규모 관광·휴양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김영록 전남도

확장 논의가 본격화됐다.

㈜LF리조트는 2019년 4월 광양시에 관광단지 개발 제안을 제출했다. 같은해 7월 광양시는 ‘행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부지 확보와 인허가 지원에 나섰다. 이후 2020년 전남도와 3자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2022년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신규 관광단지로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22년 10월 LF리조트가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제출하면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

해 각종 현안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갔다.

특히 정인화 시장은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직접 만나 ‘관광단지 지정 사전협의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주요 인허가 절차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산림청장 등을 찾아 구봉산 관광단지의 필요성과 지역민 기대를 설명했다.

시는 또한 산지협의 절차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 과정은 2024년 12월 열린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채택돼 인허가 기간이 약 6개월 단축됐다.

민간사업자와 광양시, 전남도 간 유기

적 협력체계 구축도 인허가 조기 완료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경관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함께 대응하며 유관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불과 2년 4개월 만에 인허가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시는 다음달 중 착공을 목표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전여부지 위·수탁 협약 체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준공까지 민간사업자 및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광양=김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고흥, 전국 1위 장수마을 ‘우뚛’
행복한 노후 맞춤형 지원 호응

고흥군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대비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장수마을’로 인정받았다.

통계청 최신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고흥지역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7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고흥군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1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949명의 어르신에게 대가치 없는 노인일자리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함께 일하며 교류해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기회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11월부터는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관내 목욕탕·이미용 업소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간 6만원 상당의 ‘청춘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노인전담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검진을 제공하고, 부모님 안부 확인 서비스, 어르신 침구류 공공세탁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송 행사
곡성, 기념품·꽃다발 등 증정

곡성군은 최근 지난 5개월 동안 지역 농가에서 일손을 보낸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상래 군수, 군의회 부의장, 농업농지부장, 지역농협 관계자, 계절근로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품·꽃다발 증정, 환송사, 기념촬영,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 근로자들은 인천 국제공항으로 이동해 귀국길에 올랐다.

곡성군은 올해 석곡농협, 옥과농협, 곡성농협 3개 농협을 통해 총 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멜론 정식, 방울 토마토와 감자 수확 등 다양한 농작업에 투입했다. 이 중 곡성농협과 옥과농협 소속 근로자 40명은 지난 8월 21일 먼저 귀국했으며, 이번 출국 행사에는 석곡농협 소속 근로자 20명이 참여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곡성군과 농협은 근로자들에게 체면마음과 펜션을 숙소로 제공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마련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낭만 선사

내달 8일 이순신광장·장군도 앞 해상 일원서

여수시는 11월 8일 이순신광장과 장군도 앞 해상 일원에서 ‘2025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2016년 첫 개최 이후 10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여수밤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불꽃쇼를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불꽃, 밤바다-여수에 물들다’를 주제로 열리며 멀티미디어 불꽃쇼와 드론 라이트·불꽃쇼, 무대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수채화 불꽃과 빅 트리 불꽃 연출 기법을 최초로 선보여 관광객에게 한층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부터 축제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운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관람 여건을 개선한다.

행사 당일에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안전 관리요원을 다수 배치해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인근 중앙동·동문동 등 주민자치회와 상인회로 구성된 시민협력단이 현장에서 안전지킴이 활동과 환경정비를 함께 추진해 성공적인 축제 운영에 기여한다.

정기명 시장은 “올해 10주년을 맞는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수만의 특별한 축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여수의 밤바다와 불꽃이 어우러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단도 캠퍼인 IUCN 아시아지역책임자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세계자연보전총회서 순천 역량 빛났다

국내 기초지자체 최초 IUCN 가입… 국제무대 성공적 데뷔

순천시는 한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최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 가입하고 제24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에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무대에서 공식활동을 펼쳤다.

IUCN은 1948년 창립된 세계 최대규모의 환경네트워크로, 160여개 국에서 1400여 회원(정부·지자체·NGO·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8월 정식회원자격을 획득

함으로써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IUCN의 일원이 됐다.

이는 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 온 순천만습지 보전과 국가정원조성, 생태문명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시 대표단은 지난 9일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ADNEC)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 개막식에 VIP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번 개막식에는 IUCN 회장인 라산 칼리파 알 무바라크 등 각국 정부대표와 국제기구나 6000여명이 함께 했다.

총회기간중 순천시는 스튜어트 매기니스 IUCN 부사무총장, 단도 캠퍼인 아시아지역책임자와 각각 단독면담을 갖고, 순천시의 순천만보존, 생태문명정책과 국제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무순다 말바 랍사르 협약 사무총장과 국제두루미재단(ICF) 관계자들과의 우연한 조우를 통해 순천만 보존 사례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음을 확인했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은 흑두루미와 같은 비인간존재와도 신뢰를 쌓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서로를 만나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과 정책을 IUCN과 함께 전 지구적 논의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z556pk@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